

통감부 시기, 신습교(神習敎)의 한국포교 양상 연구

권동우

영산선학대학교 부교수, 종교학/신화학 전공

susanowo0428@gmail.com

- I. 머리말
 - II. 신궁봉경회와 다카하시 히사시(高橋久司)
 - III. 신습교의 한국(조선)포교 양상
 - IV. 이학재(李學宰)의 천조교(天照敎)와 신습교 포교
 - 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8028149).

I. 머리말

교파신도의 한국(조선)포교¹ 초창기 양상은 기존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1885년 신도수성파를 시작으로 1890년 흑주교, 1893년 천리교, 1894년 신궁교 등의 순서로 전개됐다. 특히 흑주교는 1898년 조선대신궁(朝鮮大神宮)의 창립에 관여했고, 신궁교는 청일전쟁 때 국가 의례인 군신제(軍神祭)를 행하는 등 당시 교파신도와 국가신도(신사신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²

그렇다면 통감부 설치 이후, 교파신도는 어떠한 양상으로 한국포교를 전개했을까?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통틀어 아직 이뤄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고는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교파신도의 한국포교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주된 문제의식은 통감부 시기 교파신도의 한국 포교가 한국 거류 일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해 왔을 것이라는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려는 것이다.³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1910년과 1911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에 일본인 신자 0명, 조선인 신자 2,000명으로 기록되는 신습교(神習敎)의 사례에 주목하며, 통감부기 신습교의 어떠한 포교 양상이 이러한 통계결과로 이어지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갈 것이다. 이는 신습교가 어떠한 목적과 방법으로 한국 포교의 기초를 닦아갔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향후 교파신도의 ‘한국포교’나 ‘조선포교’에 대해 이해하는 연구의 초석이 될 것이다.

-
- 1 본고에서는 1897년 대한제국 선포부터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기까지의 기간을 교파신도의 ‘한국포교’, 그 이전과 이후는 교파신도의 ‘조선포교’로 표기한다.
 - 2 권동우, 「신도의 조선유입에 관한 재검토: 교파신도의 조선포교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6(2018), 415~451쪽.
 - 3 藤井健志, 「アジア・オセアニアでの布教」, 『新宗教事典』(弘文堂, 1990), 613쪽.

특히 본고에서는 다카하시 히사시(高橋久司), 다카하타 이사오(高畑庸), 이학재(李學宰) 등 통감부 시기 국내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의 관계와 역할을 중심으로 이들이 초창기 신습교의 포교에 어떠한 역할을 해 가는지에 대해 고찰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신궁봉경회(神宮奉敬會)와 '동우회(同友會)'와 '대동회(大同會)' 등 친일단체와 신습교의 관계, 또 일제강점기 갑자기 탄생하는 신종교의 한 형태인 천조교(天照敎)의 정체와 신습교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II. 신궁봉경회와 다카하시 히사시(高橋久司)

1906년, 경성(京城)에 통감부가 설치된 후, 신궁봉경회(神宮奉敬會)라고 하는 한일 합작의 새로운 단체가 설립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단체의 1909년 이후 행적만 기록하고 있는데⁴, 헌병대에서 조사한 다음의 기록을 통해 실제 이 단체가 1906년에 창립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

憲機第一四七六號

- 一. 神宮奉敬會는 처음에 1906년경 高橋久司, 渡邊哲玄 등이 창립에 관계하였으며 당시 1,500여 명의 회원이었으나 중도에 그들은 同友會, 大同會 등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정치에 관계하게 되자 해산될 운명에 빠졌으나 이번에 또다시 前 神宮奉敬會의 재흥을 기도한 것으로 前 會의 당시에는

4 서영대, 「한말의 단군운동과 대종교」, 『한국사연구』 114(2001), 252~253쪽; 문혜진, 「한일병합 이전 한성의 아마테라스(天照大神) 수용 양상」, 『민속학연구』 46(2020), 93쪽.

5 「京城神宮奉敬會의 근황」(憲機第一四七六號), 『통감부문서』 6권, 1909년 7월 26일자.

일본의 神宮奉敬會 취지에 입각하여 단지 天照皇大神宮을 제사지냈지만 이번에는 한국에 중점을 두고 天照皇大神宮은 한국의 祖宗이신 檀君과는 형제이며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일컫고 天照皇大神宮과 檀君을 아울러 제사지낼 목적 하에 재흥하여 그 후 날마다 입회하는 자가 많아 오늘에 와서는 약 2천명 이상에 달하고 매일 모이는 자가 150명 내지 200명쯤으로 날이 갈수록 성황을 이루고 있다.

- 一. 同會의 총재는 미정이나 尹澤榮을 취임시킬 것이라고 한다.
- 一. 부총재는 完興君 李載冕, 회장 金在珣, 부회장 高橋久司, 贊成長 閔泳徽 등으로 입회금 50錢, 회칙 및 세칙 인쇄 실비로 2錢 5厘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상.

明治四十二年七月二十六日

신궁봉경회는 1906년 다카하시 히사시(高橋久司)와 와타나베 데즈겐(渡邊哲玄) 등 일본인이 주도해서 설립한 단체다. 이들은 황조신(皇祖神)이자 이세신궁(伊勢神宮)의 제신(祭神)인 아마테라스(天照大神)를 한국에서 제사지내는 것과 한국의 정치문제에 간섭하는 두 가지 활동을 전개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테라스를 제사지내기 위한 한국 내 신궁 건축을 핵심 사업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는 1906년 9월에 고종황제가 은사금 20원을 하사하고 이근배(李根培), 박원근(朴元根), 엄인영(嚴仁永)이 찬조하는 등, 조선 왕실과 관료의 후원을 받는 단체였음을 알 수 있다.⁶ 하지만 이 단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1907년 5월 28일 자발적으로 해산한다.⁷

여기서 논자는 이 당시 신궁봉경회의 창립과 해산까지 회장을 역임했던

6 「恩賜神宮」, 《황성신문》, 1906년 9월 15일자; 「恩賜神宮」, 《대한매일신보》, 1906년 9월 16일자.

7 「今番 事機를 因하여 神宮奉敬會를 解散함」,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31일자.

사람이 '다카하시 히사시'라는 점⁸, 그리고 신궁봉경회가 이후 '동우회'와 '대동회' 등으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활동을 이어갔다는 위의 기록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위의 인용문에서는 초창기 '신궁봉경회'가 '일본 신궁봉경회'의 취지에 입각해서 활동했다고 적고 있다. 곧 한국 신궁봉경회가 일본 신궁봉경회의 지부라는 것이다. 하지만 1906년 전후를 떠나 일본에서 설립된 단체 가운데 한국에 신궁봉경회라는 지부를 둔 단체는 찾아볼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 신궁봉경회'가 사실은 이세신궁의 이세대마(伊勢大麻) 반포(頒布)를 전담했던 재단법인 '신궁봉재회(神宮奉齋會)'인데 이를 기록자가 잘못 기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후술하겠지만, 당시 경성에서 신궁건축을 적극 추진했던 단체는 '신궁봉재회'였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한국에서 아마테라스 신앙 정착을 위해 신궁 건축을 추진하던 신궁봉경회는 1907년 회장 다카하시의 선언으로 해산한다. 하지만 동년 6월 다카하시는 곧바로 홍재철 등과 함께 '동우회'라는 단체를 새로 조직한다. 동우회는 한일 양국의 국조 숭경(國祖崇敬)과 양 국민의 정신적 화목, 그리고 교육·자선·식산 발달을 목적으로 창립한 단체로, 이 단체는 1907년 헤이그특사 사건 이후 고종이 일본 천황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이완용 내각을 국적으로 규탄하는 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 배일(排日)단체인데, 다카하시가 이 단체의 임원이었던 것이다.⁹

이렇게 '배일운동'이라는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던 동우회는 1907년 강제로 해체당한다. 그리고 또 바로 뒤를 이어 1908년 '대동회'가 창립되는데,

8 신궁봉경회는 1907년 5월 28일 해산하는데, 이 해산에 관해 신문에 여러 차례 알리고 있으며, 이 기사에서 회장이 다카하시 히사시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今番事機를 因호야 神宮奉敬會를 解散함」, 《황성신문》, 1907년 5월 31일자; 「今番事機를 因호야 神宮奉敬會를 解散함」,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20일자.

9 강진갑, 「동우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1991), 309쪽.

다카하시는 이 대동회에 감사로 참여한다. 하지만 대동회 감사였던 다카하시는 위의 인용문처럼 1909년 '신궁봉경회'의 재흥(再興)을 시도한다. 다만 과거 신궁봉경회가 '아마테라스' 신앙의 확장을 강조했던 것에 비해, 새로 조직된 신궁봉경회에서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주장하며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단군)를 합사하려는 목적에서 한국 내 신궁 건축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일본 내에서 조선에 신궁을 건축하고 조선인을 '교화(敎化)'해야 한다는 주장은 러일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특히 1906년 규슈를 중심으로 하는 관서신직자연합회(關西神職者聯合會)에서는 『일본서기(日本書紀)』 「일서(一書)」에 기록된 '스사노오(素戔鳴尊)의 한국강림신화'를 근거로 '한국에 신사를 건설해서 일본국민을 교화하는 기초를 확립하는 방안을 한국통감부에 건백(建白)하며 나아가 그 성공을 기할 것'을 가결했다. 당시 이들은 한국에서 황조신 아마테라스를 봉재(奉齋)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¹⁰

하지만 1908년 이후 이들의 인식은 "일한(日韓) 양 국민 융화를 위해 일한 국조를 함께 제사지낼 것"이라고 하여 목적의식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며, 따라서 일본 내 신직(神職)들은 일본의 황조신 아마테라스와 한국의 단군(檀君)을 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신궁 건축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1908년 재단법인 신궁봉재회에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용산에 본부를 두고 각 일본인 거류지에 지부를 설치하는 계획 등이 보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¹¹, 이때 이들이 용산에 재건한 것이 바로 신궁봉경회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임 신궁봉경회의 회장이었던 '다카하시 히사시'는 재건하는 신궁봉경회의 부회장으로 다시 등장한다.

10 菅浩二, 『日本統治下の海外神社』(弘文堂, 2004), 54쪽.

11 위의 책, 58~65쪽.

그런데 신궁봉경회는 회장 김재순과 총무 한성규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김재순은 신궁경의회(神宮敬義會)를 별립하여 독자노선을 걷게 된다.¹² 다카하시는 김재순과 합동을 추진하나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고¹³, 결국 신궁봉경회는 회무를 쇄신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유명 변호사였던 다카하시 쇼노스케(高橋章之助)를 고문으로 추대하고 영선군(永宣君) 이준용(李俊鎔)을 총재, 이재극(李載克)을 부총재로 추천한 후 다시 신궁경의회와 합병을 시도한다.¹⁴ 하지만 이 또한 무산되고 만다.¹⁵

결국 신궁봉경회 부회장이었던 다카하시는 회무 쇄신을 계기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이후 신궁봉경회와 관련된 어떤 기록에서도 이름을 찾아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는 신궁봉경회 활동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다카하시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1911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관보』에서다. 다만 여기서 그는 기존의 '신궁봉경회'의 임원이 아니라 '신습교'의 포교사로 포교 인가를 신청하고 있다.

신습교 대강의(大講義) 다카하시 히사시(高橋久司)로부터 종교 선포에 종사한다는 건의 신청에 대해 금월(10월) 14일부로 인가함.¹⁶

'대강의'라는 직책은 1872년(명치5) 4월 25일 메이지 정부가 교도직(敎導職)에 의한 국민 교화를 원칙으로 하는 '교도직제도'를 제정한 이후 교도직

12 「神宮奉敬會ノ内訌(憲機第一五七二號), 『통감부문서』 6권, 1909년 8월 9일자; 「神宮内訌」, 《대한매일신보》, 1909년 8월 22일자.

13 「舍爲敬義」, 《황성신문》, 1909년 9월 17일자.

14 「神宮奉敬會에 관한 건」(警秘第三一四六號의一), 『통감부문서』 10권, 1909년 10월 9일자.

15 「何不一致」, 《황성신문》, 1909년 10월 10일자.

16 『조선총독부관보』 제343호(明治), 1911년 10월 18일자. “神習敎大講義高橋久司ヨリ宗敎宣布ニ從事ノ儀申請ニ付本月十四日之ヲ認可セリ”

을 1급 대교정(大敎正)에서부터 14급 권훈도(權訓導)까지 분류한 14등급의 계급 중 하나다.¹⁷ 물론 이 교도직 제도는 1884년 8월 11일 폐지되지만, 교파신도 각 교단들은 이 제도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교파신도 포교사의 직제로 활용해 왔다.

다카하시가 ‘신습교’의 ‘대강의’였다는 것은 그가 꽤 오랫동안 신습교 활동을 해 왔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 건너와서 했던 첫 번째 활동은 ‘신습교’ 포교가 아니라 ‘신궁봉재회’의 한국 지부인 ‘신궁봉경회’를 통해 신궁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특히 그가 맡은 직책이 1906년에는 신궁봉경회 회장, 1909년에는 부회장 등 주요 임원이었다는 점이다.

1906년 11월 통감부에서는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통감부령 제45호)을 선포했고, 이 법령에 따라 한국에서 선교나 포교활동을 원하는 일본인은 반드시 각 종파 관장(管長)의 허가에 의해 포교관리자를 선정하고 통감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다카하시는 이 법령이 선포되기 전부터 ‘신궁봉경회’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법령이 선포된 후에도 신습교 관장이나 통감부의 포교허가를 받은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시 그가 신습교 포교사 자격이 아니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곧 신궁봉경회 활동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 뜻이 실현되지 못함에 따라 뒤에 신습교 포교사로 활동을 전환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1890년대 교파신도의 조선포교는 흑주교의 권훈도(權訓導) 모모타 구마키치(百田熊吉)가 조선대신궁(경성신사) 건축에 깊이 관여했던 정황이나¹⁸, 신궁교의 대교정(大敎正) 후지이 이츠(藤井稜威)가 일본제국의 국가의례인 군신제(軍神祭)를 집전하는 등, 교파신

17 교도직 계급은 大敎正, 權大敎正, 中敎正, 權中敎正, 少敎正, 權少敎正, 大講義, 權大講義, 中講義, 權中講義, 少講義, 權少講義, 訓導, 權訓導로 되어 있다.

18 권동우, 앞의 논문, 436~445쪽.

도의 포교사들이 말하는 '해외 포교'에 신사신도 신직들과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다.¹⁹ 다카하시의 행적을 통해 1906년 이후에도 여전히 교파신도 포교사의 한국 내 활동이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과거에는 포교사들이 자신들의 소속이나 신분을 노출한 채 신사신도 관련 일들에 관여했다면, 다카하시의 경우 신습교 대강의라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신궁봉경회'의 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이라 하겠다. 통감부 시기에도 여전히 교파신도와 신사신도, 또는 교파신도와 신도 관련 단체들 사이의 경계가 느슨했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당시 교파신도를 포함한 일본의 신도계 인사들이 '아마테라스'와 '단군'의 합사를 통해 한국사회에 '아마테라스' 신앙을 이식하는 것을 중요한 공통의 과제처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²⁰

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아마테라스와 단군을 합사하는 '신궁건축'과 그 사상적 배경이 되는 '일선동조론'이 초창기에는 '신사신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뒤에 '신궁봉경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는데²¹, 실상은 신사신도와 교파신도, 그리고 신도 관련 단체와 교단들이 아마테라스와 단군을 합사하는 '신궁 건축'에 합종연횡하는 양태로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굳이 신사신도와 교파신도를 구분해서 '일선동조론'

19 權東祐, 「教派神道の朝鮮布教からみる近代神道の様相—神道修成派黒住教神宮教を事例に」, 『宗教研究』 92卷 1 輯(2018), 43~46쪽.

20 신궁봉경회 이후, 1920년에 조선포교를 개시하는 부상교(扶桑教)의 경우도 조선총독부로부터 관제묘(關帝廟)를 임대하여 아마테라스(天照大神)와 스사노오(素戔鳴尊) 합사를 추진하면서 스사노오가 곧 단군(檀君)이므로 이 두 신을 합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선포교의 개시와 전개 방향을 알리기도 한다(『東大門外所在 關帝廟内に 天照皇大神과 조선국국주 檀君까지 合祀』, 《매일신보》, 1920년 8월 1일자).

21 샷사 마츠야키, 「한말·일제시대 단군신앙운동의 전개: 대중교·단군교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3), 42~48쪽.

의 주장과 활동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Ⅲ. 신습교의 한국(조선)포교 양상

1. 신습교의 한국(조선)포교 개시와 전개

통감부 자료를 통해 보면 신습교의 한국 포교는 1910년에 처음 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²

神習教 韓國布教所 設立認可 申請書

今般 布教를 위해 神習教 韓國布教所를 설립 하고자 함에 인가를 얻고자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여 이와 같이 신청합니다.

明治 43年 4月 25日

原 籍 : 東京市 本郷湯島 天神町 1丁目 1番地 平民 神道神習教 教師

現住所 : 京城 黃金町 甲1番戶

大教正 高畑庸

京城理事廳 理事官 三浦彌五郎 殿

22 「신습교 한국포교소 설립의 건」, 『포교소에 관한 첩(명치40년 1월에서 명치42년 12월)』(통감부 지방부, 1910).

記

一 名稱 및 所在地

神習教韓國布教所

京城 黃金町 甲1番戶

二 宗教의 名稱

神道神習教

三 管理 및 維持方法

管理者는 따로 정하지 않고 포교사 자신이 직접 담당하며, 設立費 및 維持費는 信徒의 入教金 및 教費金으로써 이를 충당하며, 부족할 경우 自費로써 이를 변제함.

明治43年 4月 25日

신습교의 한국 포교소 설치 신청은 1910년 4월 25일 이뤄지며, 이틀 뒤인 27일 설립이 인가된다. 포교소의 위치는 경성부 황금정, 최초의 포교사는 다카하타 이사오다. 포교소가 인가되고 1개월 후, 신습교 포교소는 황금정에서 경성부 광천정(廣川町) 5번호로 이전 신청을 하며, 이는 6월 1일에 인가된다.²³

당시 신문에서는 1910년 2월 8일 통감부에서 신습교의 포교 인가를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²⁴, 이는 다카하타가 포교소 설치 없이 '단독포교자'로 포교인가를 받은 것을 기사화한 것으로 보인다.²⁵

『조선총독부관보』(이하, 『관보』) 기록에 의하면 다카하타는 1911년 7월

23 「신습교 포교소 이전의 건」, 『포교소에 관한 첩(명치40년 1월에서 명치42년 12월)』(통감부지방부, 1910).

24 「전교호갯다고」, 《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13일자; 「日神布教」, 《황성신문》, 1910년 2월 13일자.

25 「宗教單獨布教者一覽表」, 『종교에 관한 잡건첩』(통감부 지방부, 1910).

17일 '신습교 조선포교소'를 '신습교천성교회본원(神習敎天誠敎會本院)'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동년 10월 4일 '다카하시 히사시'가 신습교 포교사로 포교인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후 조선 포교에 대한 그의 행적이나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다카하시가 실질적으로 신습교 포교사로서 포교 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신습교는 초기 포교 상황이 여의치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최초의 포교사 다카하타 개인 사정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1913년 10월 29일 다카하타가 일본으로 귀환하면서 '신습교천성교회본원'의 포교소 인가가 취소된다. 이리하여 신습교의 조선포교는 일시 중단되며, 이후 다카하타와 다카하시의 행적도 확인할 수 없다.

그 후 약 10년이 지난 1924년 1월 19일, 이토가와 시로(井戸川四郎)가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포교관리자 인가를 받으면서 신습교의 '조선포교'는 재개된다. 1926년 7월 28일 신습교인천강사(神習敎仁川講社), 1940년 2월 29일 부산부에 신습교수정정포교소(神習敎水晶町布敎所)를 개설하고, 1938년 2월 23일에는 신의주에 있던 포교관리소를 경성부로 이전하지만 더 이상 포교소를 확장하지는 못한다. 『관보』를 통해 볼 때, 신습교는 통감부 시기부터 일제강점기를 통해 조선 전 지역에서 총 5군데의 포교 거점을 두고, 총 6명의 포교사가 활동하는 등 조선포교에서 큰 성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선총독부통계연보』와 『朝鮮における宗教及享祀一覽』(이하, 『향사일람』)에 보면 신습교의 조선포교가 중지됐다가 다시 개시된 1924년 이후 통계가 『관보』 기록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향사일람』의 기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朝鮮における宗教及享祀要覧』의 신습교의 포교 현황(1924~1941)

연도	포교소 수	포교사 수	신도 수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계
1924	3	22	364	4	2	370
1925	11	25	830	40	30	900
1926	3	3	240	1	80	321
1927	3	1	251	1	20	272
1928	1	0	137	0	20	157
1929	1	2	72	0	0	72
1930	1	2	244	0	0	244
1931	1	2	200	0	0	200
1932	1	2	180	0	0	180
1933	1	0	62	0	0	62
1934	1	1	140	0	0	140
1935	1	2	29	0	0	29
1936	1	2	29	0	0	29
1937	1	2	58	0	0	58
1938	1	1	42	0	0	42
1939	1	0	16	0	0	16
1940	1	0	10	0	0	10
1941	1	0	34	0	0	34

신습교의 통계는 일제강점기 전체 교파신도 가운데서도 매우 특이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향사일람』의 통계와 『관보』의 포교인 가 및 취소 내용을 대조해 보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우선 1924년 신습교 포교사 수가 22명으로 기록되는 점이나, 1925년 포교소 11곳, 포교사 25명 등은 『관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는 일제강점기 교파신도의 조선포교에 있어 『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포교사와 포교소, 곧 인가받지 않는 포교사와 포교소가 다수 존재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교파신도와 더불어 모든 종교의

포교 양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선총독부 발행의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야 하며, 『관보』같은 개별 자료에만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습교의 신도 수를 보면 연도별 변화의 증감 폭이 너무 심하다는 점이 의문스러운데, 이는 어떤 사건이나 배경에 의해 갑작스런 신도의 증가와 감소가 일어나는지 밝혀갈 필요가 있다. 이는 『관보』뿐만 아니라 『향사일람』 등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자료들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검토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과제의 세부적인 논의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2. 다카하타 이사오와 ‘포교사’의 길

공식적인 신습교 최초의 포교사는 ‘다카하타 이사오’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는 1910년 2월부터 1913년 10월까지 3년 8개월에 걸쳐 신습교 포교사로서 활약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교파신도의 ‘포교사’의 경우 불교나 기독교의 포교사처럼 전업 포교사로서 부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따로 직업을 가지면서 포교를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었다.

앞서 밝힌 다카하시가 그랬던 것처럼, 다카하타도 처음부터 신습교 포교사로서 ‘포교’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그도 또한 처음부터 신습교 포교사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다카하타는 1907년 3월 25일 ‘경성 이사청 경부(警部)로 서임(敍任)된다.’²⁶

일본의 한국 이사청에서 경찰의 임무를 행하는 관료(관입관)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동년 10월 9일에 이사청의 속(屬) 겸 경부로 광주지청 근무로 사령된다.²⁷ 그런데 1907년 9월 20일 칙령 제295호로 관제 개정이 이뤄지면서 이사청의 경시(警視)·경부·순사(巡査)를 폐하고, 통감부와 이사청 경찰관리가 모두 한국정부에 의해 임용된다는 점에서 다카하타도 이때부터는 한국정부에 의해 관입관으로 고용되어 활동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²⁸

1908년 1월 22일, 만 1년 이상 근속했다는 이유로 금22원 50전을 하사받는 기록으로 보아 다카하타의 한국 내 근무가 적어도 1907년 1월 이전부터는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²⁹ 곧 1906년 11월부터 1907년 7월까지 11개의 이사청 지청이 설치되면서 관입관 보충이 이뤄질 때 다카하타도 경성 이사청의 관입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추정된다.³⁰ 하지만 1908년 9월 23일 다카하타는 한국정부로부터 해임되어 폐관(廢官)되며³¹, 동년 11월 5일 그는 한국정부에 의해 용빙(傭聘)된 '전(元) 이사청 속 겸 이사청 경부'의 신분이 되어, 만2년 이상 이사청에서 근속했다는 이유로 금50원을 하사받는다.³² 이렇게 다카하타는 1907년부터 1908년까지 약 2년 동안 이사청과 한국정부에 고용된 관리로 활동하였으며, 폐관된 이후에는 다른 공직을 맡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카하타가 공직에서 물러난 후 약 1년이 지나서 한국에서 새롭게 활동할 장을 모색한 것이 바로 신습교 포교사의 길이었다. 다만, 앞에서 살펴

26 「絛任及辭令」, 『통감부공보』, 1907년 3월 5일자.

27 「絛任及辭令」, 『통감부공보』, 1907년 10월 9일자.

28 한지현, 「이사청 직제와 운영」, 『역사학연구』 58(2015), 158쪽.

29 「絛任及辭令」, 『통감부공보』, 1908년 2월 1일자.

30 한지현, 앞의 논문, 165쪽.

31 「彙報」, 『통감부공보』, 1908년 10월 31일자.

32 「絛任及辭令」, 『통감부공보』, 1908년 11월 14일자.

본 다카하시처럼 다카하타의 한국 내 행보도 과연 이사청 관료의 길을 선택했다가 해임 후 부득이 포교사의 길로 접어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신습교 포교사로 역할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이사청 관료의 직업을 선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앞에서 인용한 “신습교 한국포교소 설립인가 신청서”의 내용을 통해 볼 때, 1910년 다카하타의 신습교 내 직위가 대교정(大敎正)으로 교단 내 최상위 지도부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한국 포교를 행했던 교파신도 가운데 천리교를 대표하는 인물 마츠무라 기치타로(松村吉太郎)가 권대교정(權大敎正), 금광교의 나카무라 다케쇼(中村武章)가 권소교정(權少敎正), 신리교의 다니구치 시게이치(谷口茂市)가 대강의(大講義)였던 점을 생각한다면, 다카하타가 한국 포교를 개시할 당시 그의 직위는 다른 교파신도 포교사에 비해 꽤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³ 이렇게 교단 내 위상이 높았던 다카하타는 과연 신습교 포교를 위해 관료를 그만 둔 것일까, 아니면 관료에서 해임된 후 생계를 위해 부득이 포교를 선택한 것일까? 논자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혼재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다카하타의 조선포교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한다.

IV. 이학재(李學宰)의 천조교(天照敎)와 신습교 포교

신습교의 한국포교에 있어서 다카하시와 다카하타 등 신습교 포교사를 하나로 묶는 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학재(李學宰)라는 인물이다. 먼저 간략히 이들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보기로 하자.

33 교파신도의 직제에 관해서는 본고 각주 17) 참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다카하시가 1906년 조직한 신공봉경회는 1907년 6월 해산된다. 이 조직이 해산되자마자 다카하시는 홍재칠(洪在七) 등과 더불어 '동우회'를 조직하며, '동우회'는 1907년 7월 헤이그특사 사건을 빌미로 친일파들이 고종의 양위를 주장할 때 적극적인 배일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고종의 양위는 현실이 되고 말았고, 반일운동 시위를 주도한 윤이병(尹履炳)과 김재봉(金在鵬), 이근우(李根雨) 등은 유배형에 처해졌다.³⁴ 당시 동우회원의 선고(宣告)에 대한 신문의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監獄署에 在囚인 同友會員을 去月 九日에야 宣告호았는디 會長尹履炳氏는 流終身으로 姜厚善, 李學宰, 李之炳三氏는 白放되고 其外諸氏는 流十年이라더라³⁵

同友會員이 監獄署에 多月被囚인 事는 人所共知어니와 平理院에서 審査宣告호았는대 會長尹履炳氏는 流終身으로호고 會員中某某는 或十年或五年으로호고 李學宰氏는 放釋호다더라³⁶

동우회원 가운데 시위에 참여했던 인물에 이학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일본과 조정의 고종 양위 움직임에 반대하는 배일시위에 참석한 관계로 구속되어 6개월 동안 구류되어 있었으나, 평리원(平理院) 심사에서 석방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때, 당시 다카하시와 이학재는 '동우회'라는 동일 공간에서 같은 시기에 활동했으며, 서로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관계는 동우회 해산 이후 이학재 주도 아래 새롭게 '대동회(大同會)'가 조직되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34 강진갑, 앞의 글, 309쪽.

35 「同友員宣告」, 《황성신문》, 1908년 1월 1일자.

36 「동우선고」,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1일자.

有志紳士李學宰氏가 大同會를 熱心組織함은 別項趣旨書와 如하거니와 總裁副總裁를 置하고 顧問日人은 高橋文司、監事는 內尾宇內、渡邊哲、總務部長은 姜復善、教育部長은 徐肯淳、實業部長은 尹進學氏오 理事九名과 會長副會長으로 組織하얏다더라.³⁷

大同會에서 會長은 永宣君李君鎔氏로 副會長은 金思濬氏로 推薦하얏다더니 更한즉 李君鎔氏는 總裁로 金思濬氏는 副總裁로 選定하기로 內定되얏고 會長은 李根호氏로 副會長은 李學宰氏로 總務部長은 姜復善氏로 教育部長은 徐肯淳씨로 實業部長은 尹進학씨로 顧問은 高橋久思씨로 監事는 渡邊哲玄씨와 內尾宇內氏로 選定하고 理事가 十三人이오 評議員이 三十人이라더라.³⁸

이학재가 석방된 후 약 2개월 만에 주도적으로 조직한 것이 '대동회'며, 이 단체의 고문으로 다카하시(高橋文司의 文은 久의 오자, 高橋久思의 思는 誤記로 보임)가 등장하고 있다. 이학재는 신궁봉경회의 후신인 동우회, 대동회로 이어지는 조직의 창립과 활동에서 다카하시와 더불어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신궁봉경회가 동우회, 대동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또 구성원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일본인 위주로 되어 있던 임원 구성이 뒤에 동우회와 대동회로 변하면서 한국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일본인들이 중심이 됐던 단체가 정치적 문제로 인해 좌절을 경험하면서, 또 한국 내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한국의 왕족이나 고위 관료와 결탁하고 그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단체를 변화시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 '대동회'는 이후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되고, 세간에서는

37 「大同任員」, 《황성신문》, 1908년 2월 23일자.

38 「大同任員」, 《대한매일신보》, 1908년 2월 27일자.

이 단체가 일진회보다 더 악질적인 친일단체로 지목하여 비난을 한다.³⁹ 결과적으로 이학재는 대동회로 인해 경찰에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며, 결국 이 단체도 내무령에 의해 1908년 10월 해산되고 만다.⁴⁰ 그러자 이학재는 곧 이어서 '대한상무조합(大韓商務組合)'이라는 단체를 새로 설립한다.⁴¹ 이 단체는 전국의 보부상(裸負商)들을 모집하여 만든 단체로, 본인이 직접 조합의 본부장(本部長)이 되어 보부상들의 상업적 이익을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활동을 전개하는데, 이 단체의 실제 성격은 상거래보다는 강한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⁴²

이렇게 이학재가 대한상무조합을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다시 개시하던 시기인 1909년 6월 초 일본에서는 이세신궁(伊勢神宮)의 신관(神官)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도한(渡韓)하여 신궁봉경회를 재건하고 신궁건축을 다시 추진한다.⁴³ 앞서 밝힌 것처럼 신궁봉재회에 의해 신궁봉경회가 재건된 것이다. 이에 다카하시는 새롭게 구성된 신궁봉경회의 부회장이 되어 '신궁건축'을 위해 다시 노력하는 등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 하지만 결국 다카하시는 신궁봉경회와 신궁경의회의 분열 이후 신궁봉경회에서 이탈하고 만다.

1909년 10월말 이학재의 대한상무조합은 암살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동상 건립을 추진하면서 관헌의 주목을 끌게 되며⁴⁴, 이후 그는 동상 건립과 송덕비 건립을 위해 취지서를 발간하고 총리 이하 각 대신과 원로들

39 「大同學會被駁」, 《해조신문》, 1908년 3월 27일자.

40 「실업조합회협의」,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18일자.

41 「勞働會請願」, 《황성신문》, 1908년 11월 21일자; 「商務復設」,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4일자; 「處務公正」, 《황성신문》, 1908년 12월 11일자 등.

42 조재곤, 『한국 근대사회와 보부상』(도서출판 헤안, 2001), 278~279쪽.

43 「神宮建築」, 《황성신문》, 1909년 6월 4일자.

44 「伊藤公 遭難에 관한 韓民의 感想 (제3)」(警秘第二五〇九號의 一), 『統監府文書』 7권, 1909년 10월 3일자.

의 참여를 독려한다.⁴⁵ 하지만 당시 통감부는 이학재의 활동이 “그 내막을 탐사하건대 발기자들은 모두 그날그날의 호구조차도 궁한 평소 협잡배들로서 성실히 공(公)의 덕을 칭송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을 구실삼아 기부금을 모아 생계에 도움 되게 하고자 하는 야심인 것”⁴⁶ 같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동상 건립 추진은 이후 시간만 허비하다 유야무야 실패로 끝나고 만다.

그러던 1909년 12월, 이학재는 한국사회가 경악할 대형 사고를 터뜨린다. 그것은 바로 일진회(一進會)에서 추진한 합방성명서에 이학재가 300만의 대한상무조합원을 대표하여 찬성 공한(公翰)을 일진회장 이용구(李容九)에게 보낸 것이다. 이에 경시총감(警視總監)은 대한상무조합이 상업단체임에도 정치에 간여하였다는 점에 대해 엄중 경고를 하고⁴⁷, 언론에서는 이용구와 이학재의 악행을 성토했다는 기사가 쏟아진다.⁴⁸ 한성무민회에서는 즉각 이학재를 제명한다고 했고, 대한상무조합 상무원들도 이학재가 독단으로 개인의 의견을 단체의 의견처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격분하면서 이학재의 축출을 결의한다.⁴⁹ 일각에서는 이학재가 이용구로부터 비밀 보수를 받고 합방 찬성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⁵⁰, 실제 통감부에서는 이학재의

45 「伊藤公의 石碑와 銅像 建設의 發起」, 《대한신문》, 1909년 11월 4일자.

46 「伊藤公 頌德碑 建立의 件」(憲機 제2164호), 『統監府文書』 7권, 1909년 11월 10일자.

47 「시국에 대한 단체의 동정」, 『통감부문서』 8권, 1909년 12월 14일자.

48 「第二凶黨의 發現」,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15일자; 「호활대표냐」,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15일자; 「冒稱何多」,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15일자; 「별별협잡군」, 《신한민보》, 1909년 12월 15일자; 「商所憤激」, 《황성신문》, 1909년 12월 15일자; 「旅館來往의 結果」, 《황성신문》, 1909년 12월 15일자; 「두 단테 동포들에게 하례호노라」,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16일자; 「賀兩團同胞」,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16일자.

49 「除名逐出」, 《황성신문》, 1909년 12월 16일자; 「갈곳잇나」,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16일자; 「掩目揜章」, 《황성신문》, 1909년 12월 16일자; 「公憤攸同」,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16일자.

50 「同惡相濟」, 《황성신문》, 1909년 12월 16일자.

합방 찬성이 이용구로부터 1,000여원의 돈에 매수당한 것이라고 보고하여 이학재와 이용구의 유착관계를 밝히고 있다.⁵¹ 이학재는 결국 합방 찬성 이틀째인 1909년 12월 16일 한성부민회장 유길준과 면담한 후 대한상무조합 부장에서 면직된다.

하지만 이학재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과거부터 추진했던 이토의 동상 건립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뜻에 찬동하는 일부 보부상 무리들을 끌어 모아 새로운 상무부 조직을 꾀한다.⁵² 1910년 1월 연안이씨 문중에서는 이학재를 족보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도 한다.⁵³

이렇게 일진회의 합방성명서에 찬성을 한 이후로 이학재는 자신이 쌓아 온 거의 모든 것들을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되고, 이토의 동상을 건립하는 건이나 새로운 조직이나 사업을 시도할 때마다 경찰의 초치(招致)를 당하는 수난을 겪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1910년 4월 초부터는 빗 독촉에 시달릴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는데⁵⁴, 그로부터 며칠 후인 1910년 4월 6일 갑자기 이학재가 천조교(天照敎)라는 명칭의 종교를 조직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李圭恒氏가 中央商務監部를 組織하는 事에 對하여 商務組合部는 廢止될 影響이 有함으로 李學宰가 更히 天照敎라는 名稱을 組織코져 現今運動中이라더라⁵⁵

51 「一進會의 合邦聲明書 발포 이후의 각 사회단체의 동향에 관한 件」(警秘第四三六一號의 一), 『統監府文書』 8권, 1909년 12월 16일자.

52 「忠奴又現」,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28일자

53 「割譜協議」,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29일자; 「兩漢割譜」, 《황성신문》, 1910년 1월 29일자.

54 「이학재 곤란」,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2일자.

55 「又一運動」, 《황성신문》, 1910년 4월 6일자; 「商組將廢」,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6일자.

천조교는 한국식 발음이며, 일본 발음은 ‘아마테라스교’다. 곧 황조신(皇祖神) 아마테라스(天照大神)를 신앙의 주체로 하는 교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학재는 자신이 설립한 상무조합이 완전히 폐지될 상황에 처하고, 경제적으로도 궁지에 몰리자 느닷없이 아마테라스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튿날 다른 신문에는 다음의 기사가 보도된다.

李學宰는 再昨日 下午 六時에 商務組合 部員 等を 會集 說明하되 日昨 統監府에서 認可狀이 來到하였다 하며 該組合部는 무שמ敎會라 改稱하고 各 地方 商務頭領 等은 佈教師로 一般 商民 等은 習敎人으로 改稱한다 하였더라⁵⁶

이학재는 자신이 조직했던 상무조합을 천조교라는 종교로 변모시키고, 지방의 두령들을 포교사, 일반 상민들은 ‘습교인(習敎人)’으로 개칭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 언급한 ‘습교인’이 단지 교리를 익히는 단계의 일반 신도를 지칭한 것인지, 아니면 ‘신습교(神習敎)’라는 명칭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그의 이후 행보를 통해 보면 이 명칭이 신습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위 신문 보도에서는 이학재의 ‘천조교’가 통감부의 인가를 얻었고 그 인가장이 도착했다고 했지만, 당시 통감부의 어떤 기록에서도 천조교의 인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인가’는 아무래도 2월 8일 다카하타 앞으로 나온 ‘포교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쨌거나 신습교와 천조교는 서로 별개의 단체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4월 8일 신문에 다음의 기사를 보면 두 단체 사이의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56 「李學宰謠說」, 《황성신문》, 1910년 4월 7일자.

商務組合部長 李學宰는 天照敎를 擴張할 計劃으로 日人 高田庸을 委送하여 日本政府에 運動할 次로 目下 旅費를 周旋中이라더라⁵⁷

다카하타(高畑)의 표현이 고전(高田)으로 된 것은 기자의 착오로 보이며, 신습교의 포교인가를 얻은 다카하타가 이학재와 함께 천조교를 운영했다는 정황을 엿볼 수 있다. 곧 다카하타는 애초에 한국인을 전면에 내세워 신습교 포교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연구자는 이학재가 천조교를 조직하고 뒤에 이 교단을 신습교에 양도한 것처럼 분석했는데⁵⁸, 논자는 오히려 이학재가 신습교의 포교를 위해 다카하타와 공동으로 '천조교'를 만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학재와 다카하타의 연결은 어떻게 이뤄진 것일까? 논자는 그 중간에 다카하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곧 동우회와 대동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다카하시가 새로 조직한 신궁봉경회에서 이탈한 이후, 합방 성명서 찬성으로 궁지에 몰린 이학재를 신습교 포교에 끌어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이학재와 다카하타의 직접적 교류도 생각할 수 있으나, 앞선 둘 사람의 행적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다카하시가 이학재를 신습교로 이끌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이후 이학재는 천조교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양태의 행보를 보이는데, 그 방식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신의 상무조합 회원을 천조교의 포교사 또는 신자인 것처럼 선전한 것이다.

商務組合部長 李學宰는 日前 向人說話하되 目下 天照敎人이 千餘名에 達하야

57 「又一運動」,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8일자.

58 문혜진, 「일제강점기 경성부 교파신도의 현황과 활동양상」, 『서울과 역사』 101 (2018), 204~205쪽.

將次 大振興을 希望이 有하다고 無數誇張하였는데 其 內容인즉 該部員 幾個人만 敎人이라 稱할뿐이오 其他는 一人도 參入者가 無하다더라⁵⁹

이 기사에서는 이학재는 천조교 신도가 약 천여 명에 달한다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상무조합 부원들일 뿐이며, 그 외의 신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결국 천조교는 상무조합 구성원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상무조합 부원들은 한국사회에서 악질적 친일파로 낙인찍힌 이학재의 천조교 가담에 찬성했던 것일까? 당시 이학재를 따르는 상무조합 부원들은 합방성명서에 찬성하는 무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에 대한 일반 상민(商民)들의 방해나 비방이 심했다는 점에서 이학재의 천조교 창립에 적극 호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驪州郡 商務頭領 金基秀는 李學宰에게 寄函하여 曰 政合邦問題를 贊成은 以後로 一般商民이 學皆不服하니 新組織은 天照敎會나 速速成立하기를 希望한다하였다더라.⁶⁰

이처럼 천조교의 창립과 활성화는 당시 합방에 찬성했던 친일파 상인들의 새로운 활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후 이학재는 천조교를 부인계(婦人界)에 포교하기 위해 당시 여자교육회 회장이었던 김운곡(金雲谷)을 고용하며⁶¹, 천조교당(天照敎堂) 건축을 위해 자금을 모으기도 한다.⁶² 한국사회에서 마치 천조교의 포교가 본격화 하는 것처럼 보인다.

59 「號曰百萬」,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15일자.

60 「敎則肯服耶」,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26일자.

61 「女佈敎師僱聘」, 《황성신문》, 1910년 4월 29일자.

62 「建築費自擔」, 《황성신문》, 1910년 5월 7일자; 「敎堂設置運動」,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7일자.

그런데 천조교 창립 약 한달 후, 갑자기 다카하타와 이학재는 천조교를 신습교로 개칭한다고 선언하고, 다카하타는 이학재가 기존에 거느리고 있던 상무부원들을 신습교 촉탁(囑託) 포교사로 정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商務組部部長 李學宰는 天照教 名義를 神習教라 改稱하고 幾千名 傳教士기로 日人 高烟庸의게 擔保하였다더라⁶³

日人 高烟庸은 神習教를 傳布할 次로 韓人 崔榮善 全斗鉉 金斗煥 等으로 囑託을 定하고 崔世振으로 通譯을 定하여 方今 事務를 進行 中이라더라⁶⁴

천조교를 신습교로 명칭 변경한 것은 상무조합 상인들이 일괄적으로 천조교에서 신습교 신도로 전환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신습교에 한국인 포교사를 둔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들의 관계가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카하타는 조합원이 신습교 신도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당 1원의 교금(敎金)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학재와 협의한다.⁶⁵ 상무조합원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회비를 통해 교회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다.

통감부 시기, 무당들이 굿 활동이나 점복(占卜) 등의 종교행위를 위해서는 특정 종교단체에 등록해야 했고, 한국에서 포교활동을 시작하는 교파신도는 무당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비를 받아 교회를 운영하는 등 서로 이해관계가 부합하여 무당들이 교파신도에 등록하는 일이 많았다.⁶⁶ 이러한 포교 방식은 신리교에서 처음 도입했는데, 이러한 포교방식을 학습한 것으

63 「별교가또났네」,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12일자.

64 「학재담보」,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12일자.

65 「收金協議」,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17일자.

66 문혜진, 앞의 논문(2018), 205쪽.

로 보이는 다카하타는 이학재를 통해 상무조합 부원들을 신도로 받아들여 신습교의 포교를 위한 회비 수입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며, 경제난에 빠진 이학재는 그 중간에서 회비의 일부를 자신의 수익으로 기대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李學宰는 神習教를 擴張하라다가 入教金 一圓式을 定함에 對하여 一般 部員이 反對 自退하는 者 多하다더라.⁶⁷

하지만 무당들처럼 적극적인 종교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상무조합 부원들에게 신습교 신도가 되는 조건으로 1원의 회비를 지불하라는 요구는 수용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인들은 이 조건에 이에 반대하면서 신습교에서 대거 탈퇴한 것으로 보도된다.

商務組合部長 李學宰는 神習教를 傳布할 次로 日人 高畑庸과 契約을 成立하고 入教人 每名下에 金一圓式 收入하다가 入教 志願者가 絶無함으로 該契約을 日前 取消하였다더라.⁶⁸

이렇게 상무조합의 부원들을 신습교 신도로 등록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입교자가 단 한 명도 없게 되자 다카하타는 이학재와 맺었던 계약을 취소한다. 다카하타와 이학재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이 시기 이학재는 요리점에서 외상으로 요리를 먹고 돈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 곤란이 극에 달한다.⁶⁹

그래서일까? 이학재는 신습교와 계약이 실패하자 곧바로 다시 일본불교

67 「部員反對」, 《황성신문》, 1910년 5월 24일자.

68 「食福不通」,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26일자.

69 「學宰遭困」,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26일자.

인 정토종(淨土宗)에 투신하여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려고 시도한다.⁷⁰ 하지만 여기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이학재는 다시 다카하타와 손을 잡고, 이번에는 입회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신습교 휘장(徽章)을 대여한 후 그에 대한 대금을 수거하는 식으로 회원을 모집할 계획을 세우지만 이 또한 성공하지 못한다.⁷¹

이처럼 몇 차례의 실패 끝에 다카하타는 이학재와 완전히 결별하고, 과거 이학재를 통해 촉탁으로 고용했던 전두현(全斗鉉)을 촉탁으로 해서 신도 모집을 시도한다.⁷² 전두현을 촉탁으로 고용한 시점에 다카하타는 '신습교 조선포교소'를 '신습교천성교회본원(神習敎天誠敎會本院)'으로 명칭 변경하면서 신습교 포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다카하타는 이학재나 전두현 등 조선의 상무조합원을 신도로 수용하는 것에 의해 신습교 포교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 결과가 실제로 신습교의 포교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1910년 11월 29일 《대한매일신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린다.

京城 鐘路 廣耳洞 鞋塵 後에 在 神道神習敎 朝鮮布敎所에서는 該所 敎長 大敎正 高畑庸氏의 熱誠 布敎 結果로 朝鮮人 中에 同敎를 信奉 者-日增月加 現今은 神習敎徒로 宣誓加入 總員이 數千名에 達 每月 八日 例祭에는 參與 者-堂에 滿 盛況을 呈 高畑敎長은 此等 多數 信者에게 對 每例祭日 及 日曜日에 日本神道の 敎旨와 倫理道德의 大本을 諄諄不倦히 講話 聽者를 感動케 故로 同敎 信者는 神의 本旨를 體得 日常行爲에도 德操를

70 「又顧之他」,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26일자; 「리학재념불」,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29일자; 「到處狼狽」, 《황성신문》, 1910년 5월 29일자.

71 「神習何敎」, 《대한매일신보》, 1910년 6월 26일자; 「給章收金」, 《황성신문》, 1910년 6월 26일자.

72 「神習布敎」, 《대한매일신보》, 1910년 7월 1일자.

重히 녀어 鄉黨의 模範되는 實效를 擧하는 者- 不少하다 하니 朝鮮人の 教化上에 可賀할 事이더라.

마치 다카하타의 노력에 의해 신습교의 한국 내 포교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인 신자도 급속도로 증가하여 그 신자 수가 수천 명에 이르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세의 배경에는 앞서 밝힌 것과 같은 독특한 포교의 정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신습교는 이학재에서 전두현으로 이어지는 상무조합 관계자와 연대하여 상인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초창기 포교를 전개했으며, 1910년 2월 8일 포교인가 후 약 10개월의 짧은 기간 안에 수천 명에 달하는 한국인 회원(신도)을 확보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카하타는 이러한 포교의 결과를 1910년과 1911년 『통계연보』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일본인 신도 0명, 조선인 신도 2,000명이라고 하는,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이며 독특한 통계 결과가 조선총독부의 통계 기록에 남게 된 것이다.

V. 맺음말

교파신도가 한국포교를 본격화했던 1906년 이후, 이들의 포교 양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천리교나 금광교, 대사교 등과 같이 주로 재한 거류 일본인을 대상으로 포교를 전개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신리교처럼 한국의 무당들을 끌어들이며 회원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한국 포교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이다. 물론 대부분은 전자의 방식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며, 최근 후자의 양태가 새롭게 발견된 정도다.

본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신습교가 신리교와 유사한 양태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포교를 시도했지만, 그 대상이 무당이 아니라 상인들이었다는 점에서 독특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통감부기 신습교의 한국포교는 다카하타라는 일본인에 의해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국인 이학재를 전면에 내세워 '천조교'를 만들고, 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인(상인)을 회원으로 포섭함으로써 교세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명확히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유한 방식의 포교를 시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습교는 한국 포교에 있어 초창기부터 축탁의 형태로 한국인 포교사를 고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 이학재 이후 최영선, 전두현, 김두환 등 당시 실질적으로 신습교 포교를 위해 적극 활동한 것은 일본인이 아니라 보부상을 행하던 한국인 상인 그룹이었다는 점 역시 교포신도의 한국포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사례로 지적할 수 있다.

한국에서 포교를 개시한 대부분의 교파신도는 오랫동안 한국인 포교사를 두지 않았다. 그마저도 가장 빠른 것이 천리교로 알려지고 있는데, 천리교에서도 조선인이 특별포교사로 수입될 수 있도록 교규를 변경한 것이 1917년이었다.⁷³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신습교의 한국인 포교사는 축탁이라는 특이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통감부의 인가를 받는 형태는 아니지만, 한국인을 포교사로 선임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 포교의 기초를 다지려고 시도했던 최초의 교파신도 교단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한국인의 성향이 합방을 찬성하는 '친일' 성향이라는 점, 또

73 정명수, 『대한천리교사』 1(미래문화사, 2000), 161쪽.

다카하시와 이학재 등이 활약했던 신궁봉경회나 동우회, 대동회 등도 또한 친일적 성향이 강한 왕족이나 관료가 대거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신습교 포교가 순수한 종교적 포교보다는 정치적 방향에 치우쳐 있었으며, 이들 한국인들도 또한 종교적인 포교의 성격보다는 정치적인 결사의 성격에서 천조교나 신습교를 인식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교파신도의 종교성과 정치성의 상관관계 및 그 행동에 대해서는 향후 새로운 자료의 확보와 분석을 통해 좀 더 상세히 검토해 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조선총독부관보』.

『통감부공보』.

『포교소에 관한 칙(명치40년 1월에서 명치42년 12월)』. 지방부, 1910.

『종교에 관한 잡건철(명치39년에서 명치 42년)』. 지방부, 1910.

「伊藤公 遭難에 관한 韓民의 感想 (제3)」. 『統監府文書』 7권, 1909.

「伊藤公 頌德碑 建立의 件」. 『統監府文書』 7권, 1909.

「시국에 대한 단체의 동정」. 『統監府文書』 8권, 1909.

「一進會의 合邦聲明書 발표 이후의 각 사회단체의 동향에 관한 件」. 『統監府文書』 8권, 1909.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해조신문》, 《신한민보》, 《매일신보》.

2. 단행본

정명수, 『대한천리교사』 1. 서울: 미래문화사, 2000.

조재곤, 『한국 근대사회와 보부상』. 서울: 도서출판 혜안, 2001.

菅浩二, 『日本統治下の海外神社』. 東京: 弘文堂, 2004.

3. 논문

강진갑, 「동우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 1991, 309쪽.

권동우, 「신도의 조선유입에 관한 재검토: 교파신도의 조선포교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6, 2018, 415~451쪽.

_____, 「教派神道の朝鮮布教からみる近代神道の様相—神道修成派黒住教神宮教を事例に」. 『宗教研究』 92卷 1輯, 2018, 27~51쪽.

문혜진, 「일제강점기 경성부 교파신도의 현황과 활동양상」. 『서울과 역사』 101, 2018, 195~227쪽.

_____, 「한일병합 이전 한성의 아마테라스(天照大神) 수용 양상」. 『민속학연구』 46, 국립민속박물관, 2020, 87~110쪽.

삿사 마츠아키, 「한말·일제시대 단군신앙운동의 전개: 대중교·단군교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서영대, 「한말의 단군운동과 대중교」. 『한국사연구』 114, 2001, 217~264쪽.

한지현, 「이사청 직제와 운영」. 『역사학연구』 58, 2015, 147~193쪽.

藤井健志, 「アジア・オセアニアでの布教」. 『新宗教事典』, 東京: 弘文堂, 1990, 611~617쪽.

국문초록

본고는 통감부기 교파신도의 한국 포교 양상을 분석했다. 특히 교파신도의 한국 포교가 재한일본인을 주된 포교대상으로 했다는 기존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신습교(神習教)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본고의 전개는 다카하시 히사시(高橋久司), 다카하타 이사오(高畑庸), 이학재(李學宰) 등 인물관계를 중심으로 초창기 신습교의 포교 양상을 고찰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궁봉경회(神宮奉敬會)와 ‘동우회(同友會)’, ‘대동회(大同會)’ 등 친일단체와 신습교의 관계, 또 천조교(天照教)의 정체와 신습교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신습교는 한국인을 주된 포교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국인 이학재를 전면에 내세워 ‘천조교’를 만들고 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국 상인(商人)을 회원으로 포섭함으로써 교세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명확히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습교는 초기부터 포교의 대상을 ‘한국인’으로 하는 포교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신습교에서는 한국 포교에 있어 초창기부터 이학재를 중심으로 축탁 포교사의 형태로 한국인을 고용하여 포교의 주체로 내세우는 등, 비록 통감부에 보고되지 않는 축탁의 형태였지만 한국인 ‘포교사’를 선임하여 한국포교의 기초를 닦고자 시도했던 최초의 교단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투고일 2022. 3. 15.

심사일 2022. 4. 15.

게재 확정일 2022. 5. 3.

주제어(keyword) 이학재(李學宰, Lee Hak-Jae), 신습교(神習教, Shinshukyo), 신궁봉경회(神宮奉敬會, Shingungbonggyeonghoi), 다카하타 이사오(高畑庸, Takahata Isao), 다카하시 히사시(高橋久司, Takahashi Hisashi), 천조교(天照教, Cheonjogyo)

Abstract

Study on the Shinshukyo's Missionary Form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Residency General

Kwon, Dong-woo

This paper is designed to analyze the Sectarian Shinto's mission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Residency General. Especially, the paper expresses the doubts on the conventional argument that the mission of Sectarian Shinto in Korea was focused on Japanese living in Korea and analyzes the Shinshukyo. For the development of the paper, the mission of Shinshukyo at an early stage was studied focusing on the people such as Takahashi Hisashi, Takahata Isao and Lee Hak-Jae and during this process, the relation between pro-Japanese organizations such as Shingungbonggyeonghoi, Donguhoi and Daedonghoi and the Shinshukyo as well as the Cheonjogyo's identity and its relation with Shinshukyo were studied.

The analysis clearly shows that Shinshukyo not only targeted Koreans as its main missionary target but further it created Cheonjogyo with making Lee Hak-Jae, a Korean being as a front man to win over the Korean merchants and spread the religion's influence. In this respect, it was found that the Shinshukyo targeted Koreans as the main target of mission from the early stage.

In addition, Shinshukyo was the first church which tried to build a foundation for mission in Korea in that it employed Lee Hak-Jae and others as the missionary from the early stage of mission in Korea and put them as front men for mission and that it appointed Korean missionaries as the front men of mission though their mission was just in the form of part-time job and was not reported to Residency General at that time.